

작년 6월 균열 감지... 보상 신경전에 사고 유발

목포 아파트 주차장 도로 붕괴 현장 가보니

긴급 안전진단 전문가들 “아파트 건물은 문제없다” 주민들 “못믿겠다” 반발... 보수공사 시작도 못해 목포시 입주민-건설사 갈등 조정 방치 비난도

3일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3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있는 50여 명의 주민들은 “안전하다고 해놓고 정작 집에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은 무슨 이유냐”며 항의했다.

한국구조물안전원 등은 붕괴한 아파트 주차장 부지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토압으로 생긴 문제로, 아파트 건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에 선불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목포시 등은 후시 모를 사태를 대비, 주민들의 아파트 진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도 불안감에 섰듯 집에 들어가는 게 내키지 않은 분위기가 역력했다.

지난 2일 오후 1시40분께 이 아파트 302·303동과 맞닿은 가로 7m·세로 70m 가량의 주차장이 갑자기 내려앉았다. 폭격을 맞은 듯

아스팔트는 뒤뜰린 채 파헤쳐져 있었다. 경찰의 통제 라인 밖에는 주민들이 몰려 있었다.

아파트 302동·303동 주민들은 자신의 집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매번 경찰과 함께 움직여야 했다.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에 들어갔다가 이불과 옷, 통장·귀금속 등을 품 안에 안고 나오는 주민들이 잇따랐고 이들 눈빛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일부 주민들은 “안전 장비도 갖추지 않았으면서 굳이 같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냐”고 도 했다.

주민들은 아파트와 맞닿은 주차장이 붕괴된 전날의 아찔한 상황을 떠올리며 놀란 가슴을 억누르지 못했다. 문이영(여·44)씨는 “공포감 때문에 어젯밤엔 눈을 감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위치한 303동 1층에 살던 그는 당시 남편(46)과 출근 준비를 하다가 눈 앞에서 대형 펜스가 넘어지고 집 바로 앞까지 땅 바닥이 꺼지는 모습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13층에 사는 송명순(여·53)씨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진동이 느껴지더니, 땅이 쪼개지는데 얼마나 무서운 지 무작정 집을 뛰쳐나왔다”면서 “엘리베이터에 갇힐까봐 계단으로 뛰어 내려왔는데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다”며 가슴을 졸였다.

사고 하루가 지났지만 보수 공사는 시작도 못했다.

이날 사고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에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균열 등 붕괴 조짐이 감지됐지만 보상을 놓고 양측의 양보와 타협 없는 팽팽한 ‘힘겨루기’가 지속됐고 결국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는 게 목포시 분석이다.

주민들은 인접한 부지에서 진행중인 아파트 건설 공사로 도로나 아파트 외벽 균열 및 소음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건설사에 40억의 보상금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후 14억 가량으로 낮춰지던 건설사측은 2억 정도만 지급할 수 있다며 맞섰고 이 때문에 여태껏 보상 공사 등을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아파트 신축공사로 사고현장에 대한 지반 침하, 균열 등이 발생, 건설사 측에 3차례에 걸쳐 긴급안전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 등을 이유로 ‘선 보상’을 요구하며 보상 공사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목포시의 행정 조정력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양측의 갈등을 조정하기는 커녕, 주민과 아파트 건설사가 알아서 해결하기만을 바라며 적극 중재에 나서지 않아 사태를 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목포시가 지난 2007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본래 화물자동차정류장으로 계획된 부지를 아파트 건설이 가능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해주는 ‘특혜’를 제공해 사고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으로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20m 떨어진 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이 가능해졌고 이 때문에 터파기 공사 등으로 인한 균열 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뒤 상가부지가 북향 쪽에 들어설 것을 고려해 도로를 이동하게 됐다”면서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일 목포시 산정동 서부초등학교 체육관으로 피신한 목포 신안비치 3차 아파트 입주민들이 휴대전화 회화를 하면서 시시각각 전해지는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날 모델 또는 친척집 등지에서 잠을 청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kwangju.co.kr

건설사, 입주민에 세대당 하루 30만원 지원

목포 신안비치 3차 아파트 주차장 지반침하 사고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 대한 속시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1시40분께 목포시 산정동 신안비치 아파트 302동·303동 뒷편 주차장에서 각각 가로 7m·70m 가량의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345세대·800명의 입주민들은 전날부터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모델·친인척집 등지에서 지내고 있다.

이에 따라 S건설 측은 이날 숙박료·세탁비·식비 등 명목으로 한 세대당 30만원씩 지원해줄기로 했다.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한 금액이라는 게 목포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주민들은 이날 목포서부초등학교에서 통장 사본·신분증을 제출한 뒤 한 세대당 30만원씩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주일이던 한 세대당 210만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 세대당 210만원의 숙박비를 지원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S건설은 아파트 붕괴위험이 없다는 전문가 진단결과(자책 의뢰)를 토대로 침하

지역에 대한 보강공사를 한 뒤 입주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들은 “S건설의 진단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다른 전문가에 의뢰, 안전진단을 해보자는 입장이다.

한편, 입주민 상당수가 전날부터 목포시 산정동 일대 모텔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면서 이 일대 30여곳 모텔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평소보다 매출이 30~40%가량 늘었다는 모텔 주인들의 설명이다.

신임 광주지법원장에 김주현 서울고법 수석부장

김주현(52·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7일자로 김 수석부장을 장병우 전 법원장 후임으로 보임했다. 김주현은 7일자로 서울고법 수석부장에는 김동우(57·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김 신임 지법원장은 대구 달성 출신으로, 지난 1988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명된 이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 인천지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업무에 담당해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법원장은 1995~1997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파견 근무하면서 헌법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는 등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헌법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사회적 이목이 쏠렸던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합헌성을 밝히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의 환경분쟁 중재 재판관으로 선정되는 등 환경법 분야에도 탁월한 식견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환경분쟁에 대해 공해유발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법원이 초등학생과 교류하는 프로그램인 ‘멘토링 제도’를 도입했고 법정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등 법정 문화 개선에도 관심을 보였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퇴임...“책임 통감한다”

장병우(59) 광주지법원장이 3일 퇴임했다.

장 법원장은 3일 광주지법 판사·직원 150여명과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퇴임식에서 “국민의 생각과 눈높이에 대한 통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았다”면서 “정성을 다한다고 했으나 공감을 받는 데는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어쩌면 과거에 재판하면서 어떤 증거나 자료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절실한 호소를 외면한 일이 있어 그 업보를 받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고 했다.

장 법원장은 이어 “저의 불찰로 인한 국민의 질책에 대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수용하며 정든 법원을 떠난다”면서 “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의연하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

며 자긍심을 가꾸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도 이번 일과 별개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재판업무에 임하는 법관과 직원들에게 따뜻한 애정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도 했다.

송희호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은 앞서 송별사를 통해 “장 법원장은 의연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으로 사모할 때부터 ‘신은 한쪽 문을 닫을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둔다는 말대로 신이 열어놓은 다른 한쪽 문으로 더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 법원장은 퇴임식 후 법관들과 기념 촬영을 한 뒤 29년 1개월간 근무한 법원을 떠났다.

/김지음기자 dok2000@kwangju.co.kr

영산대교 승용차 추락 운전자 등 2명 사망

3일 새벽 5시께 나주시 영산동 영산대교에서 강도(41)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10m 아래 영산강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강씨와 동승한 김모(여·29)씨가 크게 다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숨졌다.

경찰은 강씨가 나주에서 영암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운행하던 중 다리 이 일대 30여곳 모텔은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평소보다 매출이 30~40%가량 늘었다는 모텔 주인들의 설명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u@kwangju.co.kr

강도의 변명 “술값 없어서...”

○심야시간에 전화통화를 하며 귀가중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홍모(37)씨는 지난달 23일 0시30분께 광주시 서구 농성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택시에서 내린 뒤 집으로 귀가하던 이모(여·24)씨의 뒤를 쫓아가 폭행한 뒤 가방에서 현금 20여 만원을 든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홍씨는 당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경찰에서 “술을 더 마시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전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무작정 뒤따라가 순간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뒤늦은 후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료전적 시공상담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탐방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 목포(삼화) 274-5987
서구 352-7788 | 목포(건영) 243-7463
남구 676-7719 | 순천 744-8605
북구 512-7998 |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OPEN 30년 전통돈까스
SALAD & PASTA COOK

유생각

유·스퀘어점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년(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한타, 주스)

프리미엄 최상급 양념
• 풍부한 육즙
• 부드러운 식감
• 최상급 치즈와 자른 허브 육성
• 최첨단 무균해 신선한 재료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스퀘어점 ☎ 062)671-1199
유·스퀘어_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